나주에 국내 최대 커피공장

남양유업 1800억 투자…내년 10월부터 커피믹스 연 50억개 생산

남양유업이 나주에 18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공장을 짓는다.

남양유업은 11일 나주시 금천면 10만5785㎡(약 3만2000평) 부지에 연건평 2만6446㎡(8000평) 규모의 커피 전용 공장을 건립, 내년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일 커피공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장이 완공되면 커피믹스 50억개에 해당하는 연간 7200t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국내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50%를 예상해 공장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투자로 2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호남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미국·독일 등의 선진 커피 공장에서 생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커피의 맛과 향을 원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키는 원스톱 입체 원두 가공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카제인 첨가물 없이 물에 잘 녹는 초미립자 크리머 설비 등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생산 과정에 적용한다.

투자비 1800억 전액을 차입금 없이 순수 사내 유보금만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기존 생산 설비와 원료 공급업체는 내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새 공장은 '프렌치카페' 브랜드를 달고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남양유업은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라며 "이 비용을 아껴 국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커피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두환 육사 사열' 비난 확산

광주 국회의원들 "책임자 처벌"

5·18재단·5월단체도 강력 반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생도 사열〈광주일보 11일자 5면〉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5·18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11일 "5·18 광주학살 원흉의 사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80년 5월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5공 핵심인사들이 육사생도를 사열하는 반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반란·내란죄를 저지른 인사를 초청해 반헌법적 국가관을 가르친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 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 온 전두환이 어디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사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고, 전 전 대통령 또한 육사생도들 앞에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을 염두에 둔 듯 "아직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처신이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를 비롯한 역사정의실천연대 가입 463개 단체 등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성명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 관련, 신군부 인사들이 육사 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할 반 역사적 행위"라며 "육군사관학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임내현 의원이 1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5공 핵심인사들의 육사 생도 사열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들은 이어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강행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증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주요 내용 삭제, 신군부 핵심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 등 일련의 정황들이 5공 세력의 부활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씨, 6년 전에도 '육사 사열' 받았다

생도 대표들과 간담회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에도 육군사관학교(교장 박종선 중장) 생도들의 사열을 받고 생도 대표들과 간담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마이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육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육사신보' 2006년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28일 '육사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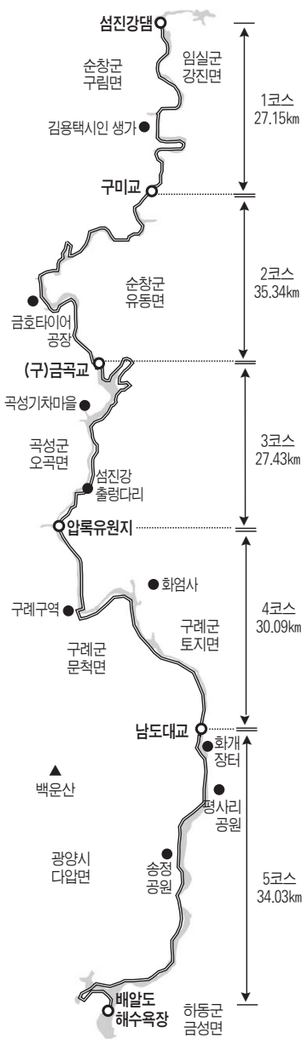
'육사발전기금'은 재단법인이지만 육사교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육사 부·처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돼 있어 육사와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이 법인의 이사장은 전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적극 가담한 육사 11기 동기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날 행사는 법인 창립 10주년과 발전기금 100억원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로 화랑의식 참관, 학교시설 견학, 만찬, 육사 음악회 관람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사열만 받은 게 아니라 이후 연대장 생도와 학생회장에 해당하는 생도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사와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모두 '서버 점검 중'으로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종행기자 golee@

섬진강 자전거 종주길 154㎞ 이달말 완공



영산강 자전거길에 이어 섬진강 자전거길〈노선도〉이 이달 말 완공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1일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광양 배알도해수욕장에 이르는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노선 154㎞가 이달 말 완공된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 '최상의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총 5개 코스로 구성돼 뛰어난 볼거리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갖추고 있다.

1코스는 전북 임실 섬진강댐~순창 구미교에 이르는 구간(27.14㎞)으로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 시인의 생가와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인 순창 구담마을, 장구목 유원지 등을 거친다.

2코스는 순창 구미교~남원 금곡교 구간(35.34㎞)으로 일본강점기 폐철도 교각과 터널 등이 자전거 길로 변신했다.

남원 금곡교~구례 예성교의 3코스(27.46㎞)와 구례 예성교~남도대교 4코스(30.09㎞), 구례 남도대교~광양 배알도해수욕장의 5코스(34.03㎞)는 주로 기존 강변도로를 따라 라이딩을 하게 된다.

익산국토청은 최근 자전거 동호인,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명과 함께 점검 라이딩을 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섬진강·영산강 자전거길 점검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미국에 '日 종군위안부 기림비' 설치

광주시가 미국 지방정부 및 미국내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일본 종군위안부 기림비'를 미국에 설치한다.

최근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 종군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미국에 기림비가 설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11일,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 미국 내 한인단체인 한미공공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낫소카운티 내 아이젠하워공원에 종군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 종군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되는 것은 뉴저지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기념비 설치는 최근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뉴저지주에 설치된 종군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주도한 것이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기림비 제막식에 참석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첫 인사청문

교과2차관 조율래·고용노동차관 이재갑

현병철 위원장

조율래 내정자

이재갑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을 연임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조율래(55)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재갑(54) 고용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영암 출신인 현 위원장은 중앙고·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현 위원장은 19대 국회 개원 뒤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광주 출신인 이 내정자는 인창고·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26기로 관직에 들어가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을 지낸 정통 노동관료다.

조 내정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마산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청와대 행정관, 교과부 정책기획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비서관도 일부 교체됐다. 뉴미디어비서관에 임재현(43) 국정홍보비서관을 전보했으며,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이성환(45)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발령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등산 탐방길·북구 누리길

국토부 친환경 공모 선정

광주시는 11일 국토해양부 주관 '2012년 친환경·문화사업 공모'결과 광산구 어등산 탐방 누리길 사업과 북구 걷고 싶은 누리길 사업 등 2개 사업이 최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친환경·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카드대금 "즉시결재"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68-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2012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 1~2회, PM 7 ~ 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으로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젝트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전 형 일 정		2012.07.03 (화) 10:00 ~
합 격 자 발 표		2012.07.30 (월) 15: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 / 기계공학 / 산업공학 / 재료공학 / 전기전자컴퓨터공학 토목공학 / 회학공학 / 환경공학 / 농업개발학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 화] 062-530-1607 [팩 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git/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